
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
	보도 2016.3.21.(월) 10:00 이후	배포 2016.3.21.(월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이 윤 수(02-2156-9810)	담 당 자	이 인 옥 사무관(02-2156-9811) 이 상 민 주무관(02-2156-9817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구 경 모(02-3145-8020)		김 준 환 팀 장(02-3145-6035)

제 목 : 「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」 개최

- 핀테크 등 금융개혁 추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
 - 카드·보험·일임형ISA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하는데 제약요인 해소
- 본인가 前에 한은·금융결제원 결제시스템에 연계 및 사전테스트 가능
 -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가 이후 조기에 영업 개시할 수 있는 여건 조성
- 임종룡 금융위원장, “IT 부문의 창의적·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조직문화가 금융과 융합되고,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”을 당부

1.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주요과제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,
 - ‘16.3.21일(월) 인터넷전문은행(케이뱅크은행)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고,
 - 설립 준비법인 임·직원, 유관기관,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「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현장간담회」를 개최하였음

※ 현장간담회 개요

- 일시·장소 : ‘16.3.21(월) 10:00~11:00 / 케이뱅크은행(The-K Twin타워 B동 16층)
- 주요 참석자
 - 금융위원장, 은행연합회장, 금감원 부원장, 예보 부사장, 금융결제원 본부장,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, 금감원 은행감독국장,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
 - 김인희 KT 부사장, 안효조 케이뱅크 대표, 신현석 우리은행 상무
 - 윤호영 카카오은행 공동대표, 이용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
 - 안동현 서울대 교수(금발심 금융서비스분과장),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

2.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현장 방문

- 인터넷전문은행(카카오은행, 케이뱅크은행) 예비인가(‘15.11.29일) 이후,
 - 2개 은행은 본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법인 설립, 자본금 출자, 임·직원 채용,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중

<인터넷전문은행 설립준비 현황>

구분	케이뱅크 은행	카카오 은행
준비법인명 (등기일)	케이뱅크 준비법인 (‘16.1.7일)	한국카카오 주식회사 (‘16.1.22일)
출자금	2,500억원 출자	1,000억원 출자 (본인가 신청전 2,000억원 추가출자 예정)
사무실	광화문 The-K 트윈타워 B동 (3.14일 개소)	판교 H스퀘어 S동 (4월중 개소 예정)
준비인원	60여명	40여명 (4월 초, 약 30여명 추가합류 예정)
전산 시스템	3월 전산시스템 구축 개시	4월초 전산시스템 구축 개시 (3월말 SI업체 선정 예정)

- 또한, 예비인가 이후 「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(‘15.12월~)」를 격주로 운영하면서 설립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중
- *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(팀장), 금융위 은행과, 금감원 은행감독국,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, 유관기관, 민간 전문가 등 참석
-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은행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하여 설립 준비현황을 청취하고,
 -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24년만에 탄생하는 신설은행이면서,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있는 임·직원들을 격려하였음

3. 간담회 주요내용

- 현장 방문에 이어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법인 임직원, 유관기관 임원,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였음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에서,
 -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서 첫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초반에 기틀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,
 - 국민적인 기대도 큰 사안인 만큼,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임직원과 정부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을 강조
-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‘핀테크 활성화’를 위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개선해 오면서, “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하기에 좋은 환경이 충실히 조성되고 있다”고 진단
 -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방식으로營業을 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미 상당부분 해소
 - ⇒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, 방카슈랑스, 투자자문, 일임형 ISA 등을 온라인·모바일 방식으로 제공 가능

- ② 비대면 실명확인,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OTP 발급 허용 등을 통해 ‘디지털 은행’ 설립 기반 마련
 - ⇒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, 간편결제 등 주요 금융거래 가능
- ③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(Regulatory Sandbox) (금년중 도입예정)를 통해 출시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
 - 일례로, 본인이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 결제망에 연계하여 충분한 사전테스트 기회 부여(한은, 금결원, 예보 협조)
 - ⇒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營業을 할 수 있도록 지원
- 한편, 금융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임·직원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당부하였음
 - ① 전산보안, 내부통제, 소비자보호 전반에 걸쳐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 마련
 - 인터넷은행이 조속히 출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
 -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
 - ② I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연한 조직문화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계
 - 사업모델, 채용, 승진, 교육, 보상 등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·혁신적인 성과중심문화 도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
 - 이렇게 되면, 청년들이 가장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좋은 은행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를 당부

- ③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
- 해외사례를 볼 때,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없이 단순한 가격경쟁에 몰두할 경우 수년내에 고사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,
 -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하여,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
- 금융위원장은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「은행법」 개정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면서,
-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「은행법」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
-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'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'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·논의하였음
- 온라인 금융환경 시대에 부합하도록 금융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금융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
- * 「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」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논의 예정
- 또한, 미국·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'15년 알리바바, 텐센트 등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여 영업중인 만큼,
 - 우리나라도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규제(은산분리 규제)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성 제기
- * 현행 「은행법」은 IT기업 등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%까지만 보유 가능 → IT기업이 안정적·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데 한계

4. 향후계획

-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, 금융위원장 현장방문* 등을 통해 현장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
- * 2분기(잠정)중 카카오뱅크 설립준비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의견 청취 예정
- 내부통제시스템·전산설비 구축 등 인가 관련 지원 및 심사 준비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「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TF」를 구성·운영(4월~)
- * 금감원 은행감독국장(반장), 은행감독국, 일반은행국, IT·금융정보보호단, IT검사실 등
- IT 기업 등 혁신적인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·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「은행법」 개정 적극 추진
- *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규제 완화 등 2개 「은행법」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

- <첨부> 1. 금융위원장 모두말씀
2.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*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